

# ‘천년을 이어온 빛, 천년 고을을 비추다’

### 기린미술관서 김영준 초대기획전 나전칠기 작품 20여점 선보여

문화공간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은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나전칠기 작품 20여점을 선보이는 김영준 초대기획전 ‘천년을 이어온 빛, 천년 고을을 비추다’ 전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전통나전칠기 기법을 현대적 디자인과 시각예술에 접목해 다양한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 김영준 작가는,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성은 물론 해외 저명인사들과 연계된 작업으로도 명성이 높다. 나전칠기의 오묘한 빛을 광대한 우주의 빛으로 변환해 시간과 종량의 힘을 느끼게 하는 그의 작업 결과는 관람자를 색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고려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고려시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문헌비고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나전칠기는 11~12세기 고려 때 가장 융성해 그 기법이 정점이었다고 한다.

고려 이래로 ‘千年을 이어온 나전칠기의 빛’은 영감이 충만한 작가의 작품이 뿜어내는 절묘한 빛으로 변환돼, 전주·나주 지역을 전라도라 정명한다(1018년, 고려현종9년) 천년이 되는 올해 2018년을



문화공간기린미술관은 김영준 초대기획전 ‘천년을 이어온 빛, 천년 고을을 비추다’ 전시를 연다.

기념하는 동시에 천년 고을인 이 지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천년 나전칠기의 빛’과 ‘천년 고을’이 조응해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기획됐다.

‘빛의 예술가’로 불리는 김영준 작가는 나전칠기의 영역을 실용 공예에서 순수예술로 넓힘으로써 시각성과 연관된 폭넓은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남원 보절면, 풍년농사기원 삼동굿 놀이 재연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에서는 음력 칠월 백중(百中)인 오는 25일 괴양리 일원에서 전통세시 풍속놀이인 삼동(三童)굿놀이가 재연된다.

삼동굿놀이보존위원회(위원장 김성범)가 주관한 이번행사는 매년 백중날에 마을의 무사와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올해 36회째를 맞이한다.

행사에서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당산굿, 지네밧기등의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화합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삼동 굿 놀이는 양촌마을 뒷산인 계룡산이 지네모양으로 마치 닭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매년 8명의 동자가 지네를 밟아주는 풍속에서 유래했다. 김성범 위원장은 “현대화 및 도시화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고유 전통놀이인 삼동 굿 놀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장 한국적인 향토 민속놀이가 되도록 보존과 계승·발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종합복지관, 무더위 완기회복 삼계탕 나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역대 최고의 무더위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의 끝자락 말복을 맞이해 16일 무더위 완기회복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주군내 지역주민을 위한 삼계탕 나눔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800명을 대상으로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과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역대 최고의 무더위로 어르신들이 입맛 없이 식사량도 줄고 힘이 없어 보였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승재)와 지역 후원자의 따뜻한 손길로 복지관 이용자와 독거 어르신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로 완기회복의 기회가 됐으며, 어르신 댁을 방문해 문안 인사와 안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무주양수발전소 이승재 소장은 “무주군 지역주민을 위한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향후에서 지속적으로 무주종합복지관과 함께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개최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는 지난 14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위한 2018년 3분기 의용소방대연합회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읍소방서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논의하고 향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중수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며, 특히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준비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적극적인 참여로 소방보조 조직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음

▲이흥기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 모친상= 별세일: 15일 오후 8시, 빈소: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연락처: 063-285-1009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용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8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8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남원지사 832-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859-9323	순창지사 653-0444	무주지사 010-2300-4233
		부안지사 010-2425-4182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임실 성수면 둔남천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 구슬땀

임실군 성수면은 지난 14일 둔남천변 경관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실군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대비해 성수면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코스모스를 식재한 것으로 성수면 직원 및 부녀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경지교에서 산정할 보까지 총 3.0km 구간에 코스모스 모종 1만2,000주를 식재했다.

이번 식재로 올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로 성수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을 제공하고 가을날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삭막한 하천 제방 대신 아름다운 산책길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완 성수면장은 “꽃 묘목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잡초 제거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장수군 번암면 해바라기 꽃밭 조성

장수군 번암면이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19번 국도변 유흥지에 조성돼 있는 꽃밭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활짝 피어있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꽃밭은 지난 달 주민자치 위원회와 직원들이 해바라기 씨 15kg를 파종했고 물을 주며 정성을 들여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힘쓴 결과이다.

해바라기 꽃밭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해바라기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바라기가 현재는 만개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흥대 면장은 “앞으로 번암면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